

국내 유일의 친환경건축 산업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 성료

녹색성장의 기수, 친환경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이하 KAFF 2009)’ 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5일간 성대하게 치러졌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건축전문전시회를 운영하는 (주)이상네트웍스와 (주)운송신문사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내 유

일의 부동산 전문방송인 한국경제TV가 주관방송사로 함께해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약 100여 업체 282부스 규모로 알차게 개최돼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로 평가됐다.

‘제로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그린정책’에 발맞추어 국내 최초로 준공된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에코시티를 구현한 ‘제로혁명관’을 구성해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과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건축기



1. 개막 컷팅식
3. 전경
5. 시가형상금속 홍보관

2. 전시회 설명을 듣는 내빈들
4. 제로혁명 주제관
6.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 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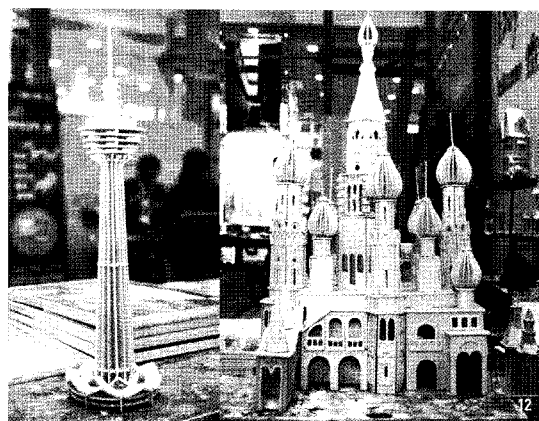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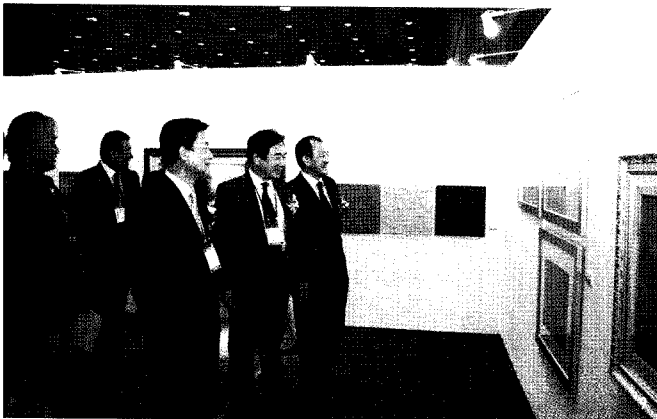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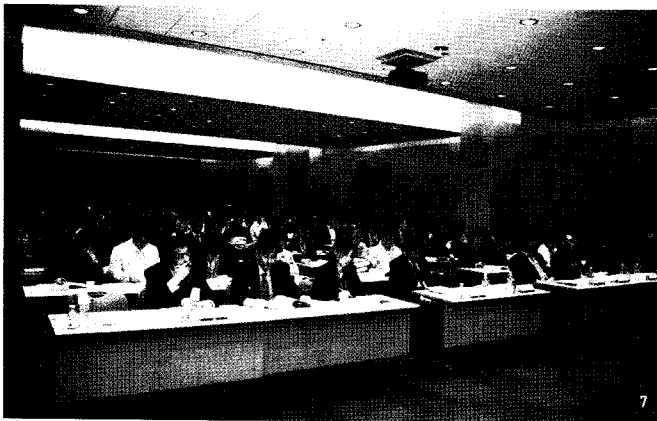
술의 구체적인 실현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차별화된 행사로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교육'이 전국 1만여명의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건축사와 건축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추운지역이라 할 수 있는 홍천, 살둔마을에서 친환경경주택을 직접 시공해 생활하는 이대철 씨의 특별 세미나 등 건축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 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등이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람객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 한국건축산업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시상,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전국건축사미술전, 서울건축사회 CM연구회,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한국내화지재협회의 특별강연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친환경건축 특별포럼 및 한국경제TV의 부동산포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세미나가 마련돼 관련 업계 전문가를 위한 폭넓은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랍장, 선반, 스톨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체험행사와 실제 크기의 1:10 축소모형블럭을 통한 '바우미 신나는 건축체험학교', 한국장애인편의시설협회의 무장애체험관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과 환경재단, 해비타트 홍보관 등이 마련돼 전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을 위한 즐거운 체험 기회와 폭넓은 건축정보를 제공했다.

KAFF 2009는 매년 우수기업 참가와 알찬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벌써 내년 전시회를 기약하는 업체와 관람객의 호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 전시회임을 증명했다.



7. 부대세미나 전경
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13. 바우미 건축체험학교

8. 부대세미나 친환경 건축포럼
11. 무장애공간을 체험중인 관람객

9. 전국건축사미술전
12. 한국DIY가구공방협회의 내손으로 만드는 DIY 체험관